

New Beginning” at Rev. Moon’s 2nd Memorial Anniversary Event

Jeong Soon Jo
October 9, 2014

[Seoul News]

Family Federation “Striving for the Creation of a Nation of Eternal Peace” in New York

‘The Unification Church made a promise to make a new beginning in America’s largest city, New York City’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founder Rev. Sun Myung Moon came to America about 40 years ago. Now his followers in New York are pledging to continue his evangelical work on the 2nd anniversary of his passing in September of 2012. At the spot where he declared the beginning of his witnessing mission for the realization of world peace, the Family Federation declared faithfulness to that same mission, and resolved to make a new beginning, drawing the eyes of the religious world.



The Family Federation held a commemorative ceremony for the 2nd anniversary since Rev. Sun Myung Moon’s ascension at the Manhattan Center in New York City on the 20th. The event was attended by about 2,000 people, including current political leaders, as well as religious and cultural representatives. The opening address was delivered by Rev. Moon’s daughter-in-law Yeon Ah Moon, the wife of Hyo Jin Moon’s and World President of the Women’s Federation for World Peace. in lieu of Rev. Moon’s wife, Dr. Hak Ja Han Moon, who has led the church since his passing. “Ever since my husband and I arrived on American soil in 1971, we have worked hard to wake up the spiritual and moral senses of America through our public movements. We came to heal this nation, to overcome the flames of corruption and individualism and to reignite the flames and the spirit centered upon God, upon which this nation was forged.”

“With the heart of true parents, we inherited God’s mission of embracing all of humankind and have invested everything we have in order to realize a peaceful world. I pray that all of you can come together to inherit this grand mission of creating a united world of peace and prosperity,” said Dr. Han. The audience responded warmly to Dr. Han’s message and religious leaders from many different sects, Family Federation ministers and members came together to pray for a new start for the Family Federation, and pay tribute to Rev. Moon.

This event marks 40 years since Rev. Moon spoke at Madison Square Garden in 1974. In 1965, he and Dr. Han held a speaking tour in 40 countries worldwide (including America), and in 1969, he carried out another 21-nation tour around the world. In December of 1971, he arrived in Washington, D. C., where he established his plan for evangelizing America. He then launched full-scale evangelical activities in New York. Rev. Moon’s speech in Madison Square Garden is remembered as an historical event during which he outlined God’s will and the path America must take in the future...

[Segye Ilbo]

“Standing at the Forefront of the American Christian Restoration of Interreligious Peace Movements”

The North American Chapter of the Family Federation Grows Daily.

Overcoming Adversity and Stabilizing Their Position even after Rev. Sun Myung Moon’s passing

Approx. 1,200 Ministers of 400 Churches

The Family Federation’s NGO “UPF” is renowned within the UN

About 30 Businesses in Operation, including Press Companies and Hotels

The “Manhattan Center,” a Grand-Scale Theater Right in the Center of New York City

Visits by the Dalai Lama and President Barack Obama

“미국 기독교정신 회복·초종교 평화운동 앞장”

날로 발전하는 가정연합 북미지부

정원 7만 위에 미국의 기독교 정신 회복과 평화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평일이 열악한 상태에서 인수한 호텔과 공연장, 학교 등이 관제자들의 파악이 안 되어 정상의되면서 세계선교의 큰 지지 기반이 되고 있다. 미주지부의 초종교 평화운동, 선교 및 경제 기반, 향후 국제 등을 살펴본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북미지부 회장

김기훈(右)은 문선명 총재 성화 이후에도 인정을 받아 미국에서 활동하며, 정권이 열악한 상태에서 인수한 호텔과 공연장, 학교 등이 관제자들의 파악이 안 되어 정상의되면서 세계선교의 큰 지지 기반이 되고 있다. 미주지부의 초종교 평화운동, 선교 및 경제 기반, 향후 국제 등을 살펴본다.

뉴욕=김·사진 평양주교총리기자지 tols@sesive.com

◆미주지부 활동 핵심은 '초종교 평화운동'

“9·11테러 같은 끔찍한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종교 간 갈등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가정연합 북남미대륙 총사(고분례인)인 김기훈 회장은 한국에서 온 일간지 종교담당 기자들을 세계무어센터(WTC) 본고향인 ‘그라운드 제로’로 안내하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가 9·11테러 13주년이였다. 뉴욕 맨해튼 남부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있던 자리에는 사라진 건물만큼 크기의 안골목이 조성돼 거센 물소리를 내며 중앙의 플랫폼으로 흘러들어가는 수연함이 걸린다. 세계에서 하루 1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한다. 북쪽 한쪽에는 104층짜리 새로 지은 WTC가 우뚝 솟아 있고, 다른 한쪽에는 지하 기념관이 있다. 기념관에는 9·11테러 희생자들의 사진과 사연, 사고 전개과정, 잔해물 등이 전시돼 그날의 비극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양 목사에 따르면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가정연합 미주지부의 활동은 9·11테러 직후 중동평화운동 등으로 돌아섰다. 양 목사는 2002가 넘는 세미나와 50여 차례의 중동 방문을 통해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평화중재 등 중동평화운동에 앞장섰다.

가정연합이 지방하는 NGO단체 천주평화연합(UPF) 미주지부는 유엔에서도 높은 지위를 거지고 있다. 토마스 알비 박사가 이끈다. 그는 국가지도급 인사들에게 초종교 평화운동을 고취하며 국가 간 연대에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로마 교황청과도 친분이 두텁다.

◆날로 탄탄해지는 미국의 선교와 경제 기반

가정연합 미주지부에는 400여 개의 교회와 1200여 명의 목회자가 있다. 이 중에는 한국인 35명, 일본인 30명이 있다. 뉴욕에만 17개 한인교회가 있다고 한다. 교인수는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초창기 한국에서 연대자 이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듯이 미국

문선명 총재 성화후에도 역경 딛고 안정 400개 교회-목회자만 1200여명 달해 가정연합 NGO 'UPF' 유엔서도 명성

연문사·호텔 등 30여개 기업 운영 중 뉴욕 한복판 대규모 공연장 '맨해튼센터' 달라이 라마·오바마 대통령도 다녀가

도 대학원리연구회(CARP) 중심으로 목회자 뿐 2~3세로 교체되며 젊은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미 시부 라스베이거스에는 대규모 뉴욕 문명센터 '평화궁(Peace Palace)'이 건립 중이다.

세계 선교 지원을 위해 연문사, 호텔, 공연장, 수산회사 등 30여 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맨해튼 중심가에 있는 40층짜리 뉴욕 호텔에는 비즈니스 사무실과 객실 1100개, 직원 500명 규모로 지난해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친문경영인인 영양하고 윈드림 체인으로 바뀌면서 4성급 호텔로 개성됐다. 뉴욕 경기기 살아나면서 순매의 경우 11월까지 예약이 끊겼다고 한다.

뉴욕카호텔 옆에 붙어 있는 대규모 공연장 맨해튼센터도 올해부터 흑자로 돌아서 순수익을 내고 있다. 지상 8층 높이에 객석 3000석 규모의 공연장에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미, 비바 오바마 대통령,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유명 인사들이 자선행사를 하였으며, 한국의 유망 스타들도 무대에 오른 편이다. 공연장 위에는 1200석 규모의 만찬장이 있고, 아랍 해대 방송인 양자지라도 입주해 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둔 수산회사 오션피스는 뉴욕카호텔의 5배가 넘는 수익을 창출하며 효자기업으로 성장해 인류의 식량자원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뉴욕에서 차로 1시간가량 거리의 홀아일랜드



뉴욕 중심가에 있는 가정연합의 맨해튼센터(왼쪽)와 40층 규모의 뉴욕카 호텔. 오른쪽 맨 위의 건물에 유명 한영미어스튜디오 빌딩이며, 주변에 뉴욕타임스, 메디슨스퀘어가든 등 명소가 많다.



임영석 목사, 토머스 알비 회장, 마이클린진슨 회장, 남철문년 총장, 연희터슨 사장, 마쿠스카를 사장

드래만에 있는 브리지포트 대학은 인수 당시 학생 수가 1300명을 조금 웃돌았으나 자립에 성공하면서 지금은 5800명에 육박한다. 캠퍼스가 정숙하고 학구적 분위기여서 아랍권에서는 국제유학생을 많이 보내고 있다. 마이클 정장은 경제담당, 남철문년 브리지포트 대통령, 연희터슨 뉴욕카호텔 사장, 마쿠스카를 맨해튼센터 사장 등이 미주지부 경제 주

역이다. 미주 가정연합의 모든 기반은 미국을 하나 남주의로 변화시키고 세계평화운동 위해 크게 쓰기 위해 문 총재 대외가 40년 가까이 마를 땀을 닦았다. 한 총재는 2012년 문 총재가 상회하자 그를 대신해 가장 학박과 인재 양성, 초종교 운동의 3대 목표를 실현하고 진력해 왔다.